



합격수기

| 목 차 |

1 자기 소개

#성적 #타임라인 #특성

2 1차 공부 방법

#교육학 #전공

3 2차 공부 방법

#실기 #수업실연 #면접

4 마치며..

#명언

1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미술 임용고시 인천지역 초수 합격생입니다.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여 합격 수기를 적어봅니다. 선생님들께서 합격 수기를 빠르게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적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단 한 명의 선생님께라도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1) 성적

1차		2차			총점
교육학	전공	실기	수업실연	면접	160.17(+9.26)
19/20	48/80	28/30	17/20	48.17/50	

(2) 타임라인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선생님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어 제 타임라인을 몇 줄 적어봅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합격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	○○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교직이수 X)		
2020	3월	동대학원 교육대학원 입학	
		1기	학교 조교, 학과공부, 교육봉사
	9월	2기	학교 조교, 논문작성, 학과공부, 한국사 시험, 교육학(1~2월 기본이론) 수강
2021	3월	3기	학교 조교, 논문작성, 학과공부, 교생실습
	9월	4기	학교 조교, 논문작성, 학과공부, 졸업시험, 교육학(1~2월 기본이론) 수강
위상미술 연간패키지 시작			
2022	3월	5기	학교 조교, 논문작성
	8월	교육대학원 졸업, 본격적으로 공부에만 올인!	
	11월	11/27 임용시험, 12/29 1차 합격	
2023	1월	1/12 2차 실기, 1/18 수업실연, 1/19 면접	
	2월	2/7 최종 합격 발표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는 미술교육 서적을 많이 읽으며, 미술교육에 대한 용어들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학 기본이론 강의를 2번 들으면서, 교육학 용어들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3) 특성

본격적인 임용준비에 앞서 자신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특성들을 합격 장치로 만들어서 자신에게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특성을 살린 안성맞춤 공부방법은 어렵고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고시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특성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타입!

저는 공부할 때 먼저 큰 숲을 보고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나무를 보는 타입입니다. 밖에서 점차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심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한 후에 세부 내용들을 이해합니다.

② 아날로그 타입! 무조건 종이와 펜으로 쓰기!

저는 모든 자료를 프린트하여 종이로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종이에 직접 연필과 펜으로 직접 쓰는 것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학, 전공 핵심 키워드를 단권화할 때, 전부 직접 노트에 써가면서 수기로 작성하며 공부했습니다.

③ 두문자(머리글자) 암기법 지향!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앞 글자로 외우는 두문자 암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두문자 암기법은 저에게 가장 맞는 암기법이었던 때문에 암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용고시 내용을 암기할 때 두문자 암기법을 적극 활용했기에, 단시간에 많은 양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단 두문자 암기법은 사람마다 선호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암기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ESFJ

저의 MBTI는 ESFJ입니다. 첫째, 저는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월별, 일별로 계획을 세워 목표를 성취할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따라서 공부 계획을 세워 계획한 것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여 공시생 시절에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것이 힐링되었습니다. 전공 직강, 실기학원에서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맛에 그나마 힘든 공시생 시기를 즐겁게 이겨냈습니다ㅎㅎ! (학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⑤ 장독립형 인지양식!

저는 장독립형입니다. 첫째, 공부할 때에는 개인주의로, 스터디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차 준비기간에는 일절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2차 준비기간(수업실연, 면접)은 스터디를 해야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둘째, 명확한 내적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적강화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 1차 공부 방법

(1) 교육학

① 선 이해, 후 암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강내역	기본이론 (인강)		심화이론 (인강)		-	-	-	-	종합모의고사 (직강)		
공부방법	이해					암기					
	내용 이해		반복 이해	암기시작		기출문제 정복		백지쓰기, 모의고사 정복			구술
비중	교육학 > 전공							교육학 = 전공		교육학 < 전공	

교육학은 60분 시험으로 시험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문제 숙지', '초안 작성', '답안 작성'을 60분 안에 해야 하므로 빠르고 정확한 키워드를 인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저는 **핵심 키워드를 빠르게 인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교육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학에 흥미를 느껴 상반기에는 전공보다 교육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다행히 1차 시험에서 교육학 점수가 전공 점수를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2차 면접도 매우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공부방법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차 면접은 결국 교육학 구술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학 내용이 면접 내용과 동일하므로 교육학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상반기= 이해, 하반기=암기! ★

★ SPEED하게 핵심 키워드 인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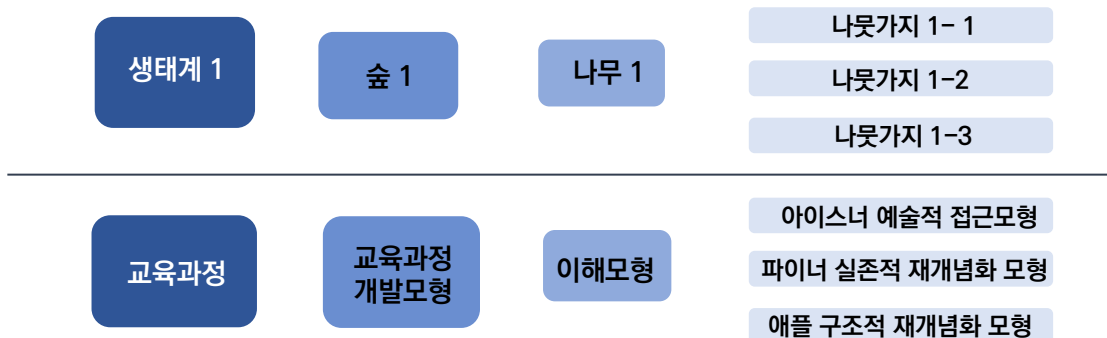
★ 전공에 자신이 없다면, 교육학 점수로 커버하는 전략 OK! ★

- 교육학: '기본이론(인강)', '심화이론(인강)', '종합모의고사(직강)' 수강하였습니다.
- 1-4월: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학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억지로 암기하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을 이해하면 암기가 어느 정도 저절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 5월: 본격적으로 암기 돌입! 두문자 암기 방법 사용! (반드시 선 이해, 후 암기)
- 6-7월: 역대 기출문제 정복하며 교육학 기출 경향을 파악!
- 8월-10월: 모의고사 정복! 백지쓰기 시작!
백지쓰기 훈련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 11월: 전공에 더 몰입하여, 매일 하루 3시간 교육학 5대 영역을 구술로 총정리!!
지속적인 구술 총정리로 자동으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인출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마인드맵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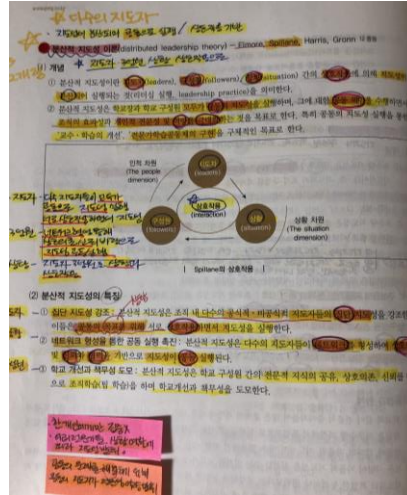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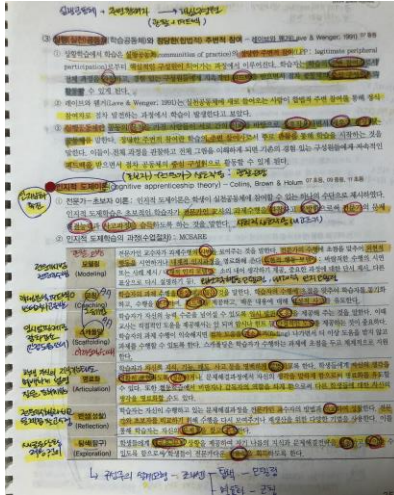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큰 숲을 본 후에 세부 나무를 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큰 목차부터 완벽히 정복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적으면서 암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이 어떤 나무에서 파생되는지를 이해하면서 말이죠.

다음의 이미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학 내용 중 '교육과정' 단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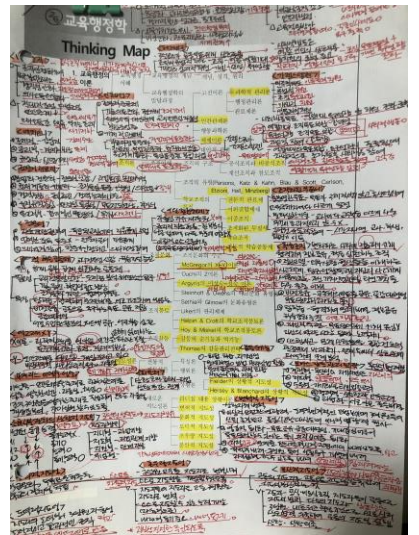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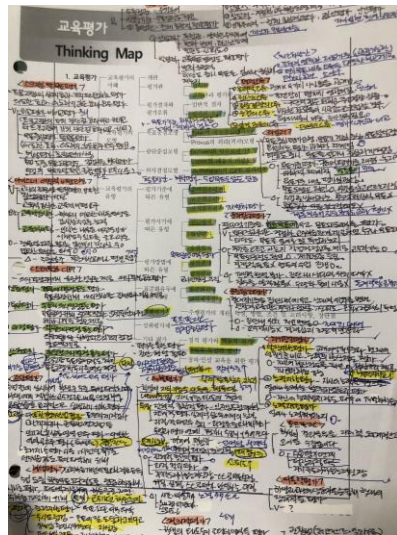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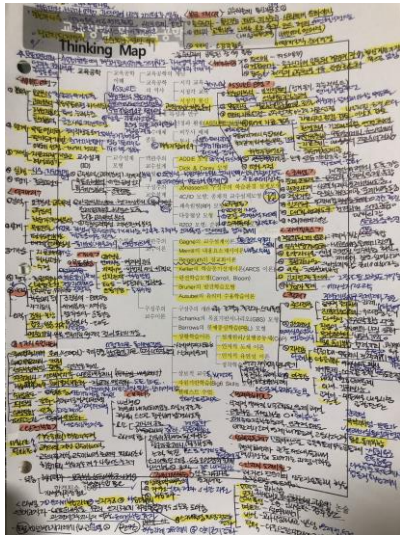


교재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계속 쓰면서 암기했습니다. 교재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꼭 써야하는 핵심 키워드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떠한 핵심용어가 어느 큰 범주에 속하는지, 어느 숲에서 파생된 나무인지를 빠르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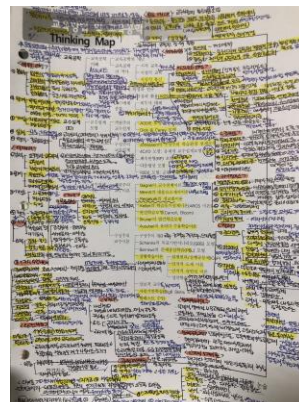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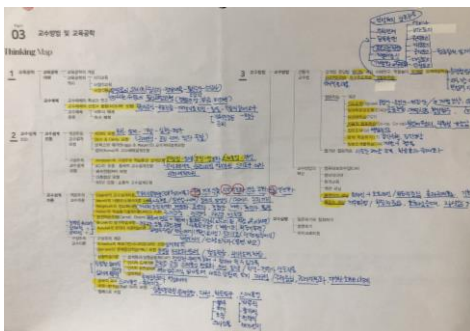
교재와 마인드맵은 항상 세트였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교재 부분과 제가 공부한 마인드맵 부분을 사진 찍어 올려봅니다.



★ 다회독 + 마인드맵 핵심키워드 반복쓰기 ★



이렇게 공부하다보니 점점 지식이 쌓이며,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점점 정교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교육방법' 단원을 구조화한 것인데, 정말 내용이 확장되어 정교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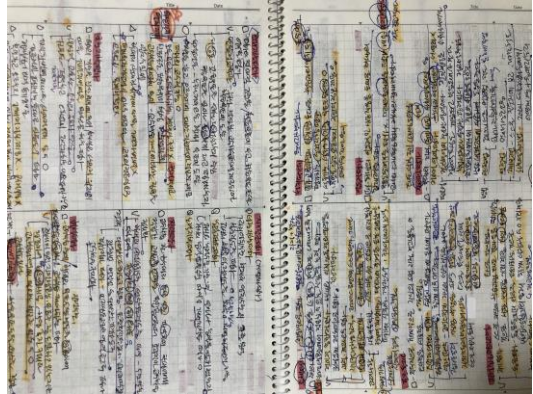


2022년 2월

2022년 9월

③ 백지쓰기

8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지쓰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두문자 암기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두문자부터 암기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본격적으로 암기에 돌입할 때에 두문자 암기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주 5일 매일 오전에 교육학 5대 영역(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행정, 교육평가)만 백지쓰기를 하였습니다. 한 단원(ex.교육행정)이 평균 3시간 걸렸습니다. 쓰고 채점하며 확인하고 수정하는 등의 총 과정이 평균 3시간이었습니다. 백지쓰기를 하니 확실히 암기가 되는 것을 느끼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용이 제 것이 되며 정교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백지쓰기를 강력추천합니다!!!



11월에는 도저히 손으로 매일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에 더 올인하기도 했고, 전공 백지쓰기도 해야했기 때문에, 교육학 백지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오전에는 교육학 5대 영역만 구술로 마인드맵 기반의 키워드를 인출하였습니다. 교육학 5대 영역(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행정, 교육평가) 키워드 구술 인출은 평균 4-5시간 걸렸습니다.

(2) 전공

① 위상미술 기반 (연간 패키지 직강 수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강 내역	기본이론 (인강)		심화이론 (인강)		서술형, 교과서 분석		영역별, 기출문제분석		실전 첨삭 모의고사		파이널
공부 방법	이해						암기				
	내용 이해		반복 이해			기출문제 정복		백지쓰기, 모의고사 정복, 반복			
서적	기본서, 심화이론서, 정리노트, 기타 자료, 서적 등										

전공은 90분 시험으로 교육학보다는 시험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공은 문제가 **요구하는 취지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압박에서 벗어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취지파악에 따른 정확한 키워드 암기를 중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위상미술 연간 패키지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기본이론(1-2월)', '심화이론(3-4월)'만 인강으로 수강하였고, 그 이후는 계속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 **취지파악!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 인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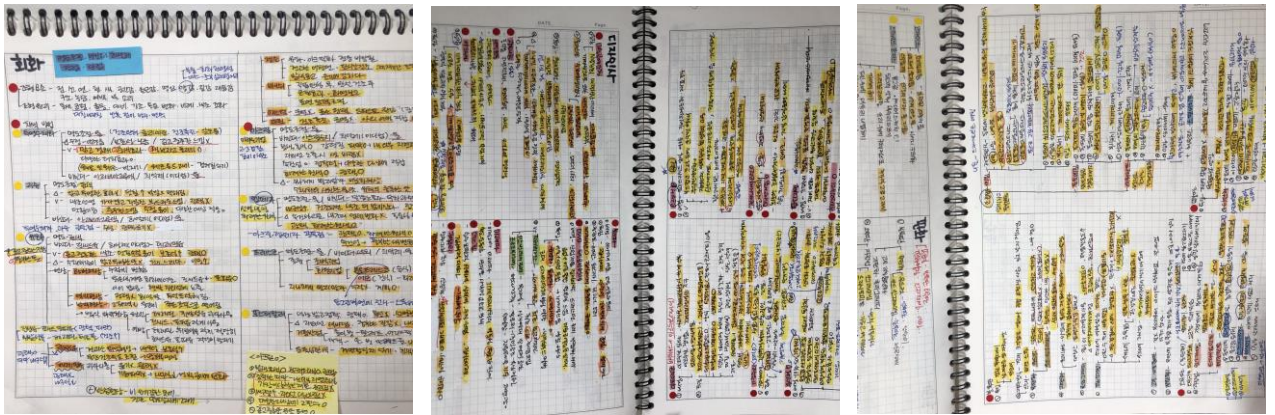
★ **상반기= 이해, 하반기=암기!** ★

② 세잔적 사고(구조화)

“모든 공부는 세잔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말은 위상 쌤이 5월 수업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저의 공부 모토로 삼았습니다. 세잔적 사고란 세잔이 사물을 기본적 형태로 파악하고 구조화, 단순화하였듯이, 방대한 지식을 구조화시켜 본질에 다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도 없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전공 지식을 수험생이 단기간에 전부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핵심 키워드로 구조적으로 단순화시켜 암기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큰 목차를 암기하고, 그 목차에 해당되는 세부 내용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구조화시켰습니다. 옷장에 옷을 잘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옷을 옷장에서 금방 꺼내어 입을 수 있듯, 공부 내용도 잘 정리하여 머리 속에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기본이론, 심화이론을 바탕으로 목차별 핵심 키워드를 공책에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큰 숲을 본 후, 나무를 보고 나뭇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뭇가지로 들어갈수록 단순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내용을 부호화하고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자니즘에 심취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세잔적 사고 강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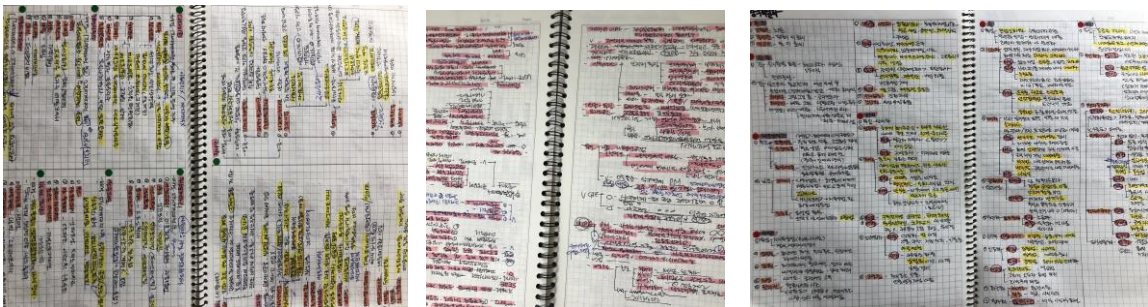


★ only 핵심 키워드로 구조화, 단순화 ★

③ 백지쓰기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전공도 백지쓰기를 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백지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는 주간 백지쓰기 스케줄입니다. 10월부터 시험 전까지 시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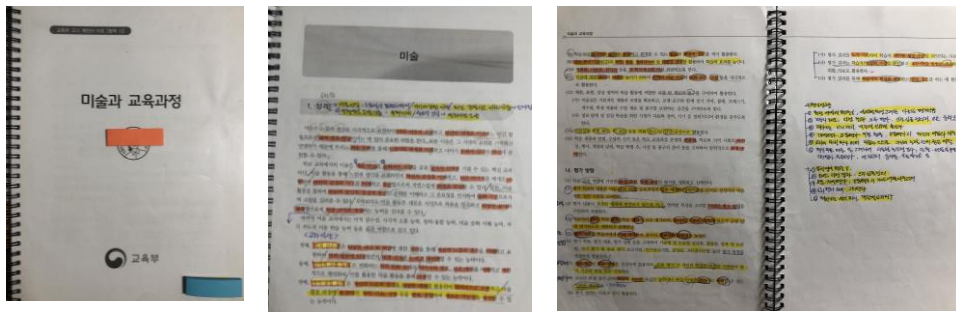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후 (13시-)	전공	미술교육학	표현	표현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부족한 영역 복습
		감상비평, 미학	(회화,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한국조형사		
2015 개정 교육과정 구술 암기							



★ 손이 아플수록 암기된다! ★

④ 미술과 교육과정 래퍼 !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부 암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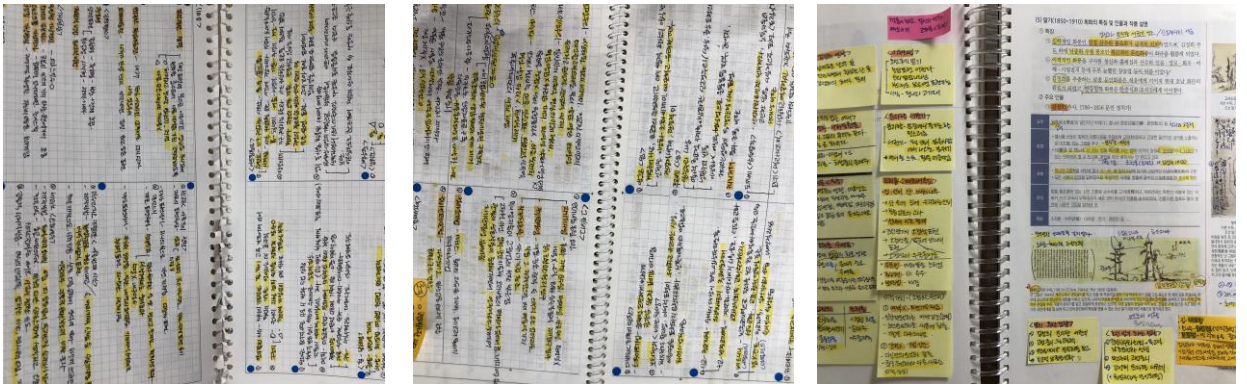


교육과정 래퍼가 되었습니다! 전부 구술로 인출하는 데 평균 15분 걸렸습니다. 매일 자기 전 구술로 인출했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자동으로 달달달 인출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백지쓰기, 구술로 암기했습니다.

비록 기껏 외운 교육과정이 1차 시험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2차 수업실연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미술과 교육과정 래퍼는 나야 나 ♪ ♪ ★

⑤ 위상미술 모의고사 문제를 적극 활용!



위상미술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공부했던 내용들을 직접 문제에 적용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문제의 질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군데의 지식을 연결시키면서 정교화하고 종합화할 수 있는 양질의 문제를 통해 문제적용력 및 해결력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바로 위상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교육학 라이겔루스(Reigeluth)의 정교화, 종합화 이론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 기본서, 심화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에 전부 녹아있었기 때문에, 세세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상미술 7월~11월 모의고사 문제들을 전부 수기로 공책에 정리하였습니다. 답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매일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화장실 시간, 자투리 시간, 식사 시간, 이동시간에 모의고사 문제 정리집을 반복 회독하였습니다.

또한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핵심 키워드는 포스트잇에 적어 기본서에 붙였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할 때 동시에 모의고사 키워드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양질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통합적 사고 가능! ★

★ 깊이 있는 이해는 법으로! ★

3 2차 공부 방법

(1) 실기

전공 30점	
<p>소묘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소묘, 발상소묘, 정물소묘 모두 연습했습니다. (인천 소묘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든 주제 연습 필요합니다.) · 1차 시험 끝난 후, 바로 학원 등록했습니다. 	
<p>조소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조만 연습했습니다. (인천 조소: 부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람, 동물, 사물 다양한 대상 연습 필요합니다. · 1차 시험 끝난 후, 바로 학원 등록했습니다. 	

(2) 수업실연

수업실연 20점	
<p>① 단원별 동기유발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분석한 후, 단원 별로 동기유발 준비!(10개 이상의 동기유발 준비했음) · 틀에 박힌 동기유발이 아닌, 채점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참신한 동기유발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p>② 자신만의 수업실연 대본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본 통째로 암기! 암기 만이 답이다! ·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합격 장치들을 곳곳에 마련하기!
<p>③ 교과서 집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단원, 내용, 활동, 도판 등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 교과서 단원 별로 수업실연 연습해보기!

(3) 면접


면접 50점	
① 기출문제 정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타 지역, 비교과 면접 기출 문제들도 모두 풀어보기!
② 자신만의 면접 만능틀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만의 만능틀은 반드시 통째로 암기! 암기 만이 답이다! •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만능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능틀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핵심 키워드 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답이 더 깔끔하고 확실하게 들릴 수 있도록 문장을 구조화하기! • 일목요연하게 답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가 묻는 답을 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깔끔하게 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④ 지역 시책을 녹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이 평가원 지역이었지만, 저는 대부분의 문항 답에 지역 시책을 녹여내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평가원 지역이라고 해도 지역 시책과 특징들을 답안에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신이 해당 지역 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답안을 구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⑤ 전문성 어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무조건 사자성어 2개, 교육학자 명언 1개를 넣어 답하였습니다. 문제에 조건이 없더라도, 사자성어나 교육학자 명언, 현행 이슈 교육용어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장하여 꾸며주는 말은 NO ★
★ 일목요연한 구술 OK ★

저에게 힘이 되었던 위상선생님의 명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정한 명언 장인!

역대 위상쌤 명언



-  모든 공부는 세잔적 사고가 필요하다.
구조화, 단순화가 필요하다!
-  합격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학생들을 더 야심차게 가르칠
것이라는 신념을 명심하라!
-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늘 잊지 않는 것이다!
-  꽃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지고 가야 열매가 맺기 때문이다!
-  합격의 문이 열린다!


미술임용의 자부심 위상 미술

명언을 되새기며
공부할 합격생
출발

끝으로 사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위상 선생님과 장지연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위상미술




사행시

위 위로가 되어주는 명언 장인
위상쌤과 장지연쌤!

상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미 미소를 지으면서

술 술술 문제가 풀리는 곳은 바로
위상미술!



선생님들! 부족한 합격수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동료교사가 되실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leen220@naver.com